

골든타임 지났나...미국 마이애미 붕괴 구조현장 탄식

사망 9명으로 늘고 150여명 실종 구조에서 수습으로 전환 관측도 에어포켓 등 생존 공간 발견 못해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명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NYT)와 마이애미헤럴드는 이날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를 옮기며 길이 38m, 폭 6m, 깊이 12m의 구덩이를 파는 새로운 수색 방식이 시작된 가운데 추가로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방식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돕는 중대한 방식으로 쓰일 것이라고 다니엘라 레빈 카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설명했다.

구조 현장을 헬기에서 내려다 찍은 영상에는 최소 크레인 2대, 굴착기 2대 등 중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국은 애초에 생존자가 잔해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중장비의 사용을 자제해왔다. 그 때문에 작업이 구조

에서 수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서프사이드의 찰스 버킷 시장은 현장의 수색 작업이 인명 구조에서 복구·수습으로 전환됐느냐는 물음에 "무기한의 구조 작업이 될 것"이라며 부인했다.

지난 며칠간 수색 작업의 속도에 좌절감을 표시했던 가족과 친지들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 간절한 기도와 애도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9명,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150여 명으로, 인력 300명 이상이 투입돼 수색과 구조 작업을 24시간 계속하고 있다. 버킷 시장은 "(구조)자원이 부족하지는 않다.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의 문제"라며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행운이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여전히 생존자 구조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도 잔해 속에서 생존자 존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나 소리는 없었다고 전했다. 잔해 속에서 에어포켓이나 틈이 발견됐는지 질문에 마이애미데이드 앨런 코민스키 소방서장은 수색작업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은 아직 보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12층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27일(현지시간) 구조대가 건물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붕괴 참사 나흘째인 이날 시신 4구가 추가로 사고 현장에서 수습돼 이번 사고의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아직도 156명의 생존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공포의 델타변이...각국, 확진자 증가에 앞다퉀 방역 강화

백신보급 능가하는전염력에 불안 세계 확진자 줄다가 다시 40만명 유럽·아시아 봉쇄·거리두기 박차

백신 접종으로 둔화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거센 전파력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완화하기 시작한 방역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다시 조였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억7900만여명, 누적 사망자는 약 385만명이다.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0만3837명, 8612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는 지난 4월 말 하루 사이에 80만여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1만여명이 코로나19로 숨지던 때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전 세계 92개국에서 보고됐다. 아프리카에서는 지난주 일일 확진자 수가 25% 증가했다. 델타 변이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00명대를 유지하던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는 이날 기준 600명 내외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51%가, 스페인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2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261명일일 일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개최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박람회장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소에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도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일 확진자가 이날 25일에는 5869명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2만1000여명씩 나오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들은 포화 상태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세계 각국 정부는 완화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포르투갈과 러시아 등 변이 바이러스 우려 지역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 국적자와 거주자도 2주간 격리를 해야

입국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9일 영국을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내달 11일까지 도쿄에 적용하기로 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긴급사태 선포 전 단계의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의 5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졌던 이스라엘도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 상태. /연합뉴스

미 언론인 "미얀마군에 석 달 구금 고문당해"

"눈가리고 때리며 잠도 안재워"

"미얀마군이 때리고, 일주일 넘게 심문하면서 눈을 가렸다."

쿠데타를 자행한 미얀마군에 구금됐던 미국 언론인 나탄 마웅(44) 카마웃 미디어 편집장은 군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이같이 고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3월9일 마웅을 체포해 6월 15일 석방, 미국으로 추방했다. 마웅은 미얀마 태생으로 1990년대 미국에 망명했으며 이번에 카마웃 미디어 사무실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마웅은 "구금되고 나서 처음 3~4일이 가장 심했다"라며 "그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주먹이나 뺨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양손으로 뺨을 때려 귀를 맞았으며, 주먹으

로 얼굴도 쳤다"라며 "어깨를 때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했다. 다리로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웅은 또 "허리 뒤로 손을 끼어 수갑을 채우고 천으로 눈을 가렸다"라며 "사나흘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끊임없이 추궁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나흘째 폭력이 이어진 후 마웅이 미국 국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멈췄다고 한다. 마웅이 풀려난 후 미국 관료가 접촉했으며, 가족의 신변을 보호했다는 게 미국 대사관의 설명이다.

미 대사관은 마웅의 동료로 역시 미국 언론인인 대니 펜스터 역시 한 달 넘게 구금 중으로 지난주가 돼서야 미국 관료들과 대화가 허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웅은 "나와 같이 구금된 한 타르 나인은 아직 풀려나지 못했으며 나보다 더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국군 기밀문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

크립반도 접근시 러 반응 담겨

영국의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문서가 잉글랜드 켄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다고 B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으로 남길 원한 일반인이 지난 22일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약 50장에 달하는 문서 꾸러미를 발견하고 BBC에 알린 것이다.

BBC는 이메일,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등을 담고 있는 이 문서가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사무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

부는 지난 주 직원에 내부 문서 분실 사실을 신고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영국 구축함이 크림반도에 접근했을 때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응, 영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가능성 등이 담겨 있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3일 영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디펜더가 러시아 연방의 국경을 넘어 세바스토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영해를 무해통항 중이었다며 경고 사격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